

전남 드래곤즈 승천할까 FA컵 역대 최다우승 도전

부산과 29일 4강전 ... 수원은 제주와 격돌

전남 드래곤즈가 부산 아이파크를 제물 삼아 FA컵 4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13일 서울 축구회관 로비에서 열린 2010 하나은행 FA컵 4강 대진 추첨에서 전남 드래곤즈와 부산 아이파크의 대결이 결정됐다. 두 팀은 29일 오후 7시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만난다.

지난해 FA컵 챔피언 수원 삼성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올 시즌 정규리그 1위로 질주중인 제주 유나이티드와 맞붙게 됐다.

전남은 2006~2007년 연속 FA컵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통산 세 차례 우승을 차지했다. 정규리그 10위에 머물고 있는 전남은 4번째 우승을 통해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하겠다는 각

오다. 부산에게는 2004년 이후 6년만의 우승 도전이다.

전남과 부산의 대결은 양팀의 사령탑 전남 박항서 감독과 부산 황선홍 감독의 '사제간의 대결'로도 관심을 끈다. 또 결전의 장소인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은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두 감독이 코치와 스트라이커로 플란트를 상대로 본선 첫 승을 합작했던 곳이기도 하다.

박 감독은 대전 추첨 이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황선홍 감독이 결승에서 수원과 붙고 싶다고 했는데 일단 전남부터 이겨야 한다"고 기선 제압에 나섰다. 또 "2002년에는 황선홍 감독이 플란트전에서 결승골을 넣고 달려 나한테 안겼는데 이번엔 이기게

되면 내가 황 감독에게 달려가서 안기겠다"는 농담을 하며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전남의 무서운 신인 지동원은 전남 우승의 키를 쥐고있다. 지동원은 경남과의 16강에서 3골을 몰아 넣은 뒤 상무와의 8강에서도 결승골을 터트리며 팀을 4강에 올려놓았다. 지동원은 FA컵 3경기에서 5골을 넣으며 득점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11일 정규리그 21라운드에서 만났던 수원과 제주를 FA컵 준결승에서 다시 한 번 진검승부를 벌이게 된다. 21라운드 경기에서는 제주가 3-0으로 수원을 제압했다.

수원은 시즌 초반 정규리그 최하위까지 추락하는 등 고전했지만 윤성호 감독 부임 이후 7위까지 치고 올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NFL 개막 ... 치어리더들도 즐거워

13일 메릴랜드주 랜드로버 시 페덱스 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 풋볼(NFL) 워싱턴 레드스킨스와 델러스 카우보이스의 2010시즌 개막전에 앞서 치어리더들이 운동장으로 뛰어든다. 한편, NFL에서 활약 중인 한국계 스타 하인츠 워드(34·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이날 애틀랜타 펄컨스와 홈 개막전에서 와이어드리시버로 출전, 팀에서 가장 많은 6번 패스를 받아 108 야드를 전진했다. /연합뉴스

박주영 시즌 첫골 터졌다

다섯 경기만에 마수결이도

팀은 마르세유와 2대2 무승부

프랑스 프로축구 AS모나코에서 활약 중인 박주영(25)이 정규리그 다섯 경기만에 고대하던 시즌 첫 골을 기록했지만 팀은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박주영은 13일(한국 시각) 프랑스 마르세유 벨로드롬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그1 5라운드 올랭피크 마르세유와 원정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전후반 90분을 모두 뛰면서 후반전에 역전골을 넣는 맹활약을 펼쳤다. 4-4-2 포메이션에서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나선 박주영은 1-1로 팽팽히 맞서던 후반

34분 역습 기회에서 고대하던 시즌 첫 골을 밟아냈다. 센터 서클 인근에서 길게 들어온 패스를 이어받아 골대 정면에서 상대 수비수와 골키퍼를 연이어 제친 뒤 왼발로 침착하게 밀어넣었다. 박주영의 이번 시즌 첫 골이자 첫 번째 공격 포인트다.

이번 시즌 매 경기 풀타임으로 뛰면서도 득점포를 가동시키지 못한 박주영은 이 골로 그간의 '골 갈증'을 풀었다.

하지만 박주영의 골이 터져 나온 지 불과 1분 뒤인 후반 35분 아드리아누 페레이라가 상대의 슈팅을 걸어내려다 자책골을 만들어내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연합뉴스

한국-나이지리아 8강전

U-17 여자월드컵

태극소녀들이 2010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전차군단' 독일에 패하며 조2위를 확정해 나이지리아와 4강 진출을 다투게 됐다.

최덕주 감독이 이끄는 U-17 여자대표팀은 13일 트리니다드 토바고 아리아의 레리 골드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독일과 대회 B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전반을 실점 없이 막아냈지만 후반 연속골을 내주며 0-3으로 패했다.

또 A조의 북한은 홈팀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맞붙어 1-0으로 이겼다.

2승1패로 A조 2위를 확정낸 북한은 17일 오전 8시 마라벨라 맨니 램폰 스타디움에서 B조 1위인 독일과 8강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광양제철고 '승부조작'?

축구협·프로연맹 진상조사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10 SBS 고교클럽 챌린지리그 B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불거진 승부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동조사위원회를 꾸렸다.

프로연맹은 13일 "이날 오전 축구협회와 함께 지난 11일 치러진 대회 B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광양제철고가 포철공고에 후반 막판 5골을 내주며 1-5로 역전패를 당한 것과 관련해 승부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공동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프로연맹은 이어 "축구협회 경기국과 프로연맹 운영국이 주체가 돼 당시 경기의 감독관과 심판을 상대로 조사하기로 했다"며 "양 팀 감독의 얘기도 들어보기로 했고, 당시 경기 장면을 담은 영상도 수소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양제철고는 지난 11일 포철중학교 운동장에서 치러진 포철공고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1-0으로 이기고 있던 후반 34분부터 9분 동안 무려 5골을 내줘 1-5로 패했다.

승리를 거둔 포철공고(6승2무4패·골득실+7)는 같은 시간대에 경기를 치른 금호고(5승5무2패·골득실+6)와 나란히 승점 20점으로 동률을 이뤘지만 골 득실에서 1점 앞서며 조별리그 3위를 차지, 3위까지 주어지는 연말 초중고리그 왕중왕전 출전권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최경주·나상욱 '최후의 30인'에

챔피언십 최종전 출전... 우즈 탈락

'탱크' 최경주(40)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 출전권을 2년 만에 따냈다. 최종합계 6언더파 278타를 기록한 최경주는 나상욱(27·타이블리스트), 매트 쿠차, 라이언 무어(이상 미국)와 함께 공동 3위에 올랐다. 우승은 9언더파 275타를 친 더스틴 존슨(미국)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 전까지 페덱스컵 포인트 52위에 그쳐 상위 30명만 나가는 투어 챔피언십 출전이 불투명했던 최경주는 순위를 23위로 올리며 플레이오프 최종전 진출에 성공했다. 나상욱도 버디 3개와 보기 2개로 1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라 페덱스컵 순위 20위로 2년 연속 투어 챔피언십에 나가게 됐다.

그러나 3라운드까지 공동 2위를 달리던 위창수(38·테일러메이드)는 최종합계 4언더파 280타, 공동 8위로 밀려 페덱스컵 포인트 33위에 그쳤다. 타이거 우즈(미국)도 시즌을 마감했다. 우즈는 이날 8번 홀까지 보기만 3개를 치며 해마다가 이후 버디 4개로 이를 만회하며 최종합계 1언더파 283타, 공동 15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위성미 2개 대회 연속 우승 무산

청아니에 역전패... 신지에 공동 5위

재미교포 위성미(21·나이키골프)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개 대회 연속 우승이 무산됐다.

위성미는 13일(한국시간) 미국 아칸소주 로저스의 피너클골프장(파71.6천284야드)에서 열린 P&G NW 아칸소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단독 선두로 시작했지만 2타를 줄이는데 그쳐 합계 12언더파 201타로 청아니(대만·13언더파 200타)에게 우승컵을 넘겨줬다.

지난 대회 캐나다여자오픈에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던 위성미는 연속 우승을 노렸지만 마지막날 6타를 줄이며 맹추격한 청아니의 기세를 꺾지 못했다.

청아니는 올해 두개의 메이저대회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과 브리티시여자오픈을 제패한데 이어 1승을 보태면서 여자골프의 강자로 거듭났다.

사실상 위성미와 청아니의 매치플레이로 펼쳐진 마지막 라운드에서 박민비(22)가 8언더파 205타로 4위에 올랐고 김인경(22), 신지에(22), 이선화(24)가 공동 5위(7언더파 206타)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2010 Green 광주전남 자전거축제

2010년 10월 31일(일) 오전 7시 30분 ~13시

광주광역시청(출발)~광주공항삼거리~평동공단~나주동신대학교~삼거교차로~호남대학교(도착)

종 목 · 로드레이스(경쟁 46km)

주 최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일보사

주 관 | 광주광역시 사이클연맹

후 원 | 광주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광주광산경찰서, 나주경찰서

문의 | 062)220-0541

http://bike.kjmedia.co.kr